

I. 動向과 展望

1. 國內 金利

- (動向) 通貨當局이 不渡波紋으로 通貨管理를 緩和한데다가 금융권의 자금 사정도 좋아 市中金利는 下落勢를 나타냄
- (展望) 附加稅 등 대규모 세금 납부가 시작되는 4월 중반 이전까지는 금융권의 資金剩餘가 持續되어 시중금리가 下向 安定될 전망임(4월 중반까지 會社債收益率 14.0~14.2%, 중반 이후 14.5%)

- (動向) 3월 중순 이후 시중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함.
 - 3월 30일 현재 콜금리는 月末資金需要에도 불구하고 12.50%의 낮은 수준을 유지
 - CD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은 각각 14.50%, 14.20%로 3월 15일 대비 1.50% 포인트, 1.15% 포인트 하락함
 - 이는 부도파문으로 통화당국이 통화관리를 완화한데다가, 금융기관이 中小企業에 대한貸出을忌避해 금융기관내 잉여자금이 풍부한데 있음
 - 高金利信託商品의 매출 증대로 은행권의 잉여자금이 확대
 - 회사채 수익률의 추가 하락 예상으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축소·연기

- (展望) 附加稅 등 大規模稅金納付가 시작되는 4월 중반 이전까지는 시중금리 下向 安定勢가 이어질 전망임(4월 중반까지 회사채 수익률 14.0~14.2%, 중반 이후 14.5%)
 - 현재의 시중금리 하락세는 景氣狀況을 반영하기보다는 금융권의 資金剩餘에 의존하고 있는데, 적어도 4월 중반까지는 금융권의 자금 잉여세가 이어질 전망
 - 4월초에 滿期가 도래하는 1조 원 정도의 CP가 投金社의 支給保證忌避로 재발행되지 않을 경우에 금리 불안 요인이 됨. 그러나 CP에 몰리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은행의 CD, 금전신탁쪽으로 유입되면서 은행권 자금 호조 예상
 - 4월 중반 이후에는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대규모 부가세 납부(25일 3조 원 정도) 등이 예정되어 있어 시중금리가 재상승할 전망
 - 통화당국이 地自制選舉에(6월) 대비한 기술적 통화지표 관리의 일환으로 4월부터 통화관리 고삐를 쥘 가능성이 높음

<最近 金利推移>

	94말	95.1말	2말	3/15	3/18	3/22	3/30
콜금리(% 1일물)	25.00	25.00	17.00	12.00	10.05	11.00	12.50
CD(% 91일물)	15.40	16.54	16.50	15.65	15.00	14.74	14.50
회사채(% 3년물)	14.25	15.20	15.45	15.25	15.00	14.80	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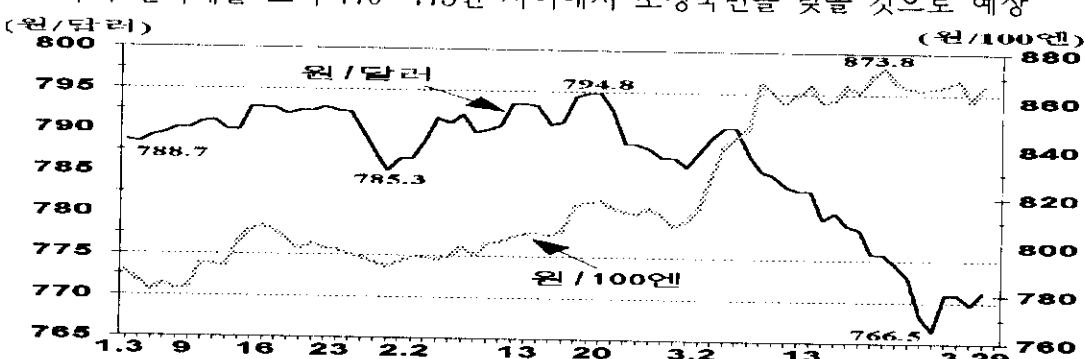
(손영기)

2. 원貨換率

- (動向) 원/달러 환율은 급격한 切上 이후 소폭의 切下勢를 보였고 엔화에 대한 환율도 865~870원대에서 脫落을 거듭하고 있음
 - (展望) 달러 약세화의 진정, 월초의 輸入決済增加로 원貨 환율은 소폭의 절하세를 보이며 4월 중 770~775원대에서 동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됨

 - (動向) 지난주 766.5원까지 절상되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주 들어 769~771원대에서 다소 鎮靜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2일에는 7월 44전이 하락, 市場平均換率制度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절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5일에 770원대를 회복함
 - 29일부터 소폭의 절하세를 보임(3월 27일: 769.7 → 3월 31일 : 771.5)
 - 원貨의 對엔貨換率은 3월 20일 사상 최고치인 873.8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切上勢로 돌아섬(3월 31일 : 862.25)

 - (原因) 원貨 절상세가 한풀 격인 것은 그동안 원貨의 절상을 주도했던 投機的賣渡勢가 週期的인 월초의 달러貨 강세에 대비 환차익의 실현을 위해 달러貨의 적극적인 買受勢로 轉換한데에 기인함
 - 급격한 원고에 대한 憂慮心理와 함께 국내 외환 시장의 특징인 월초의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달러 매수가 확대되고 있음
 - 外換去來法 개정으로 하루 거래량의 70~80%가 비실물 거래로 이루어짐으로써 원貨投機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최근 원貨換率急變의 주요 원인임

 - (展望) 短期적으로는 調整期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 연말까지는 국내 경기의 활황과 자본 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外資의 급속한 유입이 예상되어 切上勢가持續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4월초에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약세화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월초의 수입결제 집중에 의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의 절하세를 보여 770~775원 사이에서 조정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
- (원/달러) 
- (원/100엔) (이보성)

3. 株價

- (動向) 금리 안정 및 엔高 현상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 등으로 바닥권에서 탈출하였으나 930포인트 대에서 短期 急騰에 따른 調整 樣相을 보임
- (展望) 장기적으로는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조의 취약 및 투자 심리의 불안 등으로 調整 樣相을 보일 전망임

- (動向) 2월 말 885.69포인트에서 低點을 형성한 이후 주가가 3월 들어서만 60포인트 가량 상승한 이후 930포인트 대에서 短期 調整局面에 있음
 - 회사채 수익률의 하향 안정세(14%대 진입), 당국의 악성 루머 유포 행위의 단속에 따른 투자 심리의 안정, 엔고 지속에 따른 수출 호조, 그리고 證市 規制緩和措置의 발표 기대감 등이 주가의 상승 분위기를 리드해 왔음.
 - 고객 예탁금의 연중 최저치 기록(2조 2천억 원), 평균 거래량의 감소(일평균 2천2백만 주), 그리고 주식 價格 制限幅 확대의 영향에 따른 대형 우량주가의 단기 급등 등 부정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아 930~950포인트 대에서 短期 調整을 보이고 있음

<주식 시장의 주요 지표>

구 분	3월 1일	3월 10일	3월 20일	3월 30일
종합 주가 지수	903.42	944.37	956.87	926.93
고객 예탁금(억원)	23,682	23,833	23,176	21,931
회사채 수익률(%)	15.50	15.30	14.80	14.20
對 달러 엔貨 환율	96.74	91.10	89.05	88.35

- (展望) 長期的으로는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短期的으로는 시장 기조의 취약 및 투자 심리의 불안 등으로 당분간 調整 樣相을 보일 전망임
 - 長期的으로는 자금 시장의 안정으로 시중 실세 금리가 하향 안정세에 있고, 엔高로 현재의 경기 확장 국면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證市 規制緩和措置로 인해 증시가 활성화될 전망임
 -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연중 최저치인 2조1천억 원대의 고객 예탁금 수준으로 인한 시장 기조의 취약, 그리고 현재의 差等 定額 方式에서 6%의 定率制로 확대 적용되는 주식 價格 制限幅의 확대로 인한 투자 위험의 증가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심리 불안, 그리고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 물량의 증가에 따른 매물 압박 요인등으로 인해 당분간 調整 樣相을 보일 展望임 (천 일 영)

4. 國際 金利

- (動向) 美聯準의 現 金利水準 維持 決定으로 시장금리는 下落勢로 反轉하였음
- (焦點) 日本銀行은 엔高 防禦를 위해 來遇 중 再割引率을 引下할 방침임
- (展望) 4월 중 美國의 주요 시장금리는 強保合勢가 豫想됨

- (動向) 미국의 주요 시장 금리는 3월 23일을 전후로 下落勢를 나타내었음
 - 시장 금리들이 하락세를 나타낸 주요인은 美聯準이 금리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漫然하였기 때문임
- (焦點) 美聯準은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日本銀行은 엔高의 防禦를 위해 콜금리의 하락을 誘導할 방침임
 - 3월 28일에 美聯準은 公開市場委員會 會議에서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 美聯準이 달러貨의 가치 지지를 위한 금리인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달러화 약세가 인플레 유발 효과보다는 오히려 미·일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때문임
 - 반면 일본은행은 3월 31일에 엔高를 防禦시키기 위해 콜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方針이라고 밝혔음
- (展望) 4월 중에 美國의 主要 市場 金利는 強保合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달러화의 절하세는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3월 30일 독일의 금리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콜금리 하락 유도는 달러화의 가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 경기에 대해 연착륙(soft landing)과 재확장세(second wind)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연준이 4월 중에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가 再擴張勢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年內에 美聯準이 금리인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美國의 主要 市場 金利 推移>

	2월 28일	3월 3일	10일	17일	24일	27일	28일	29일	30일
연방기금금리	6.12	5.87	5.87	5.87	6.00	6.18	6.00	5.50	6.12
T-Bill(3개월)	5.76	5.72	5.77	5.74	5.66	5.66	5.70	5.66	5.70
T-Note(5년)	7.06	7.19	7.06	6.96	6.93	6.89	7.01	7.01	7.04
T-Bond(30년)	7.45	7.54	7.47	7.38	7.37	7.32	7.40	7.38	7.42

(김난주)

5. 國際換率

- (動向) 美 달러화 가치는 최근 急激한 脫落을 계속하고 있음
- (原因) 미국, 일본 및 독일 중앙 은행의 外換市場 介入과 金利 관련 정책의 變化
- (展望) 長·短期的으로 달러화의 약세기조가 不可避할 것으로豫想

- (動向) 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切下勢가 3월 7일을 前後하여 둔화되고 엔/달러 환율은 89 엔臺, 마르크/달러 환율은 1.40 마르크臺를 中心으로 급격한 脱落 거듭
 -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엔/달러 환율은 6.6% 切上
 - 마르크/달러 환율은 6.4% 切上
 -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엔/달러 환율은 1% 切上(27일: 89.5엔)
 - 마르크/달러 환율은 2.6% 切下(27일: 1.406마르크)
 - 3월 28일 이후부터 급격한 등락을 계속하고 있음

<3월 중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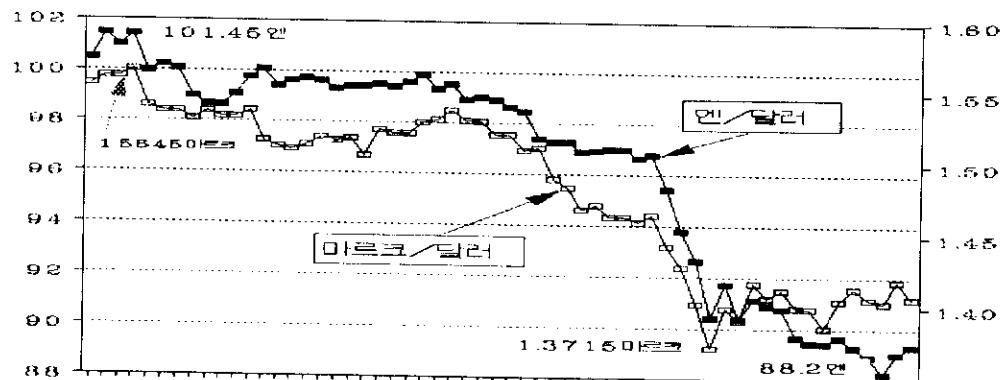
	3.1	3.7	3.14	3.21	3.28	3.30	3.31
엔/달러	96.8	90.4	90.8	89.3	88.9	89.6	86.3
마르크/달러	1.465	1.372	1.412	1.413	1.388	1.409	1.365

註: 뉴욕 시장 종가.

- (原因) 3월 중순 국제 외환시장의 安定勢는 달러 안정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市場 介入과 金利 政策에 기인. 최근 달러화 가치의 急激한 脱落은 각국 금리 정책의 不調和가 원인임
 - 3월 7일 이후, 일본 중앙 은행의 적극적인 달러 매입과 일본 금리 인하 시사에 영향을 받아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切上勢는 둔화되었으나
 - 일본 기업의 본국 송금이 지속되어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완만한 절상세를 유지하였음
 - 독일은 독일 연방은행의 금리를 인하 시사와 유럽 지역의 정정 불안 퇴조로 마르크/달러 환율은 완만한 切下勢를 유지하였음
 - 그러던 중 3월 28일,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지 않아 달러화 가치는 상당 폭으로 切下되었음
 - 3월 30일에는 독일이 금리를 인하하여 달러화 가치는 절상세를 나타냄
 - 그러나 31일, 일본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다시 절하세를 나타내고 있음

- (展望) 美國이 金利를 引上하지 않는 한 長·短期의 달러화의 切下勢가 不可避할 것으로 展望됨
 - 달러화 가치 下落 要因
 - 일본의 재할인 금리 동결
 -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1월 중 122.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 3월 28일 미연준은 정책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결정
 - 미국 재정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음
 - 달러화 가치 上昇 要因
 - 3월 이후 94 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일본 기업의 본국 송금 감소
 - 독일의 재할인율 4.0%로 0.5% 포인트 인하(3월 30일)
 - 미국 채권 시장 및 주식 시장 강세 지속(3월 24일 다우존스 주가 지수는 4,138.67로 사상 최고치 기록)
 - 향후 5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660억 달러 삭감하는 복지 정책 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
 - 멕시코 금융 시장 단기적 안정세(페소화 가치와 주식 시장 회복세)
 - 4월초, 일본 기업의 본국 송금이 감소하여 달러화의 절상요인이 될것임
 - 그러나, 일본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달러화의 대엔화 약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마르크/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과 서로의 변화에 連動되는 경향이 있어 독일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절상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最近 달러貨換率推移>



(이 준호)